

일본, 미국 연료탄 수입확대 추세

일본은 미연료탄 수입확대에 대한 적극적 검토와 더불어 본격적인 개발수입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다.

일본의 연료탄수입을 보면 호주탄이 약 70%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호주에 편중된 석탄 수입선을 타 수출국으로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연료탄 수입을 보면 호주탄에의 의존도가 약 70%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호주의 가격인상요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료탄의 경우는 호주탄 의존도가 약 40%밖에 안돼 대체수입선인 캐나다와 미국탄을 견제수단으로 이용, 가격교섭에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이러한 원료탄의 사례를 중시, 전력업계를 중심으로 한 연료탄 대수요처는 대체수입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유력한 수입선으로서 미국탄이 지목되고 있다. 미국탄은 1987년 이후 가격상승으로 경쟁력을 상실하였다가 최근 달러화가 안정되면서 호주탄과의 가격경쟁력을 회복하였다. 일본은 미연료탄 수입확대에 대한 적극적 검토와 더불어 본

격적인 개발수입 프로젝트를 계획중이다.

일본의 연료탄수입을 보면 호주탄이 약 70%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점유율이 약간 감소하고 있다. 미국탄이 비록 호주탄, 남아탄, 소련탄, 중국탄 다음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증가율(1989년)은 전년대비 무려 226%의 경이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사실 호주탄을 제외하면 매장량, 수출여력의 면에서 향후 수입확대가 가능한 국가는 미국뿐이다. 따라서 일본이 미국에 거는 기대는 상당하다.

미국탄 수입은 50% 가까이를 전력업계가 주도하고 있다. 현재 일본전력부문의 해외탄 수요는 매년 10%에 가까운 성장에 힘입어 1989년만 하여도 전년대비 13.3% 증가, 약 1,500만톤을 기록하였다(TEX Rep., 90. 2. 14). 이러한 증

가세는 199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어 수요량은 3,700만톤(1998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일본정부와 전력업계는 적절한 공급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 연료탄의 수입확대를 통한 대호주 수입의존도 경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수입연료탄의 국내도입가격(CIF)을 보면 1988년도에 비해 미국탄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하나 열량당 단가는 호주보다 오히려 낮은 편에 속한다. 이러한 경쟁력회복에 따른 미국탄의 선호도 증대는 수입실적에서 잘 나타난다. 최근 3년간의 수입을 보면 1987년 8만톤에 불과하던 것이 작년에는 136만톤을 기록, 무려 17배나 증가하였다.

일본의 미연료탄수입은 현재로서는 Utah주의 4개탄종(Pinnacle, Sufco, Skyline, King)에 국한되었다. 작년도 전반기에 평가한 동지역의 대일수출가능량은 95만톤(1990년)으로서 작년도 계약물량을 하회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적극적 수입계획을 반영한 탄광의 설비확장을 감안하여도 190만톤(1992년)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타 Spring Creek(Powder River), Usibeli(Alaska) 등이 있으나 규모와 탄가, 내륙수송 및 항만문제 때문에 수출량확대에 제한을 받고 있다. 최근 추진하고 있는 Los Angeles항의 신규석탄수출 터미널 건설계획(하역능력: 1,500만톤/년)에의 참여도 이러한 미국탄수입확대의 장애를 사전에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